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6호 【루게 제22998호】 주제 99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 중국 만향집단공사 리사국 주석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조니 혼 《국제김일성기금》 리사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어온 꽃바구니들이 1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그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일본주체사상연구재단이 꽃바구니를 드려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일본 김일성주의연구회 회원이요

요우찌 유지단장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2월의 명철에 즈음하여 중국 만향집단공사 리사국 주석 로판이가 축하편지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하편지와 선물을 중국 만향집단공사 자원봉사 경리이며 중광공제투자유한책임공사 부총경리인 구화가 10일 중국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설명절을 맞으며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심을 안고 설명절을 맞이한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수도 평양과 각지에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심을 안고 설명절을 맞이한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수도 평양과 각지에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조선인민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덩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자들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경모하여 삼가 인사물을 올리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사적비 《길이 빛나라 불멸의 령도자육이여!》

원산 청년발전소에 건립

원산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 일념을 안고 짧은 기간에 혁명사적비를 훌륭히 건립하였다.
혁명사적비준공식이 11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원산청년발전소 종업원들,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 원산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한 원산시에서는 백계봉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비를 건립한 것은 더없는 영광이라고 하면서 원산청년발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전력생산을 높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을 발휘하며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작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호를 받들고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시켜 대박, 대혁신을 창조할것을 절정적으로 높이 기대하며, 이들을 위하여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혁명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부강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수산물생산을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종업원결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금야군 원평대흥수산사업소 종업원결기모임이 13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사업소종업원들이 참가한 결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조길모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연경춘, 작업반장인 황국범, 김성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공정제품과 각종 수산물가공제품들을 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사업소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부두건설 등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일을 한데 대해 평가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와 물고기가공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사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배와 어구의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고기베의 만능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어로장비를 철저히 세우고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며 선진적인 어구와 어로방법 도입, 새로운 어장탐색사업도 진행될것에 대하여 기대를 나타내며 말하였다.
어러가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는 한편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대적인 냉동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적하고 위생문화적 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다짐하며, 새롭고 다양한 수산물가공품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흥남에 대형산소분리기를 보내주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아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대형산소분리기를 보내주었다.
민사람의 열광적인 환송속에 보면 이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흥남에 대형산소분리기를 생산하여 보내준 이 격동적인 소식은 비날름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려 커다란 환희속에 잠겨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맡고대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1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신데 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제를 앞당겨 끝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곳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과 그들을 성실

니란개기에 력량을 집중 연별별안의 농촌들에서

올해농사치비에 펼쳐나선 연별별안의 농촌들에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논밭에 거름을 많이 내야 양을 곱고 지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하게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정초부터 펼쳐나선 이맘때는 겨울을 전부 모진데 실어낸 배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일제히 니란개기전투에 들어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경제기술적지도를 짜고들었다.
군일군들은 군안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 니란이 매장되어 있는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농장별니란생산계획을 정확히 주고 현지에 나가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다. 니란생산의 불결은 운산, 봉동, 후정협동농장에서 새차례 타올랐다.
이 농장들의 일군들은 니란 매장지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작업조직과 그 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사업을 정확히 하였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쉼없이 빛내일 불라는 결의를 안고 펼쳐나선 금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체득시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 것이다》에 대한 해설모임이 초급위원회단위로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또한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동맹원들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학습, 강연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청년전위》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지난해 정초부터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편지물들을 내보내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사업도 널리 조직하고있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모임들이 다양하게 조직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2월의 명절을 맞아 전국청년학생들의 배두산일출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을 조직하는 것과 함께 도, 시, 군청년동맹조직들에서 경축모임, 경축공연, 노래모임, 응원모임, 경축무도회, 체육 및 유희오락행



결사의 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칭송의 마음 넘쳐흐르는 제14차 김일성화축전장 - 김일성화김정일화진시판에서 -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정론

장군님 따라 신심드높이 가리라

드디어 번은 리지고야말았다.
위성이 난 우리의 하늘아래 주체철이 쏟아지고 우리 식 CNC바다가 펼쳐지며 백과라틴 《신문 11경》이 솟아오른 이 땅에 이번에는 조선의것, 조선의 자존심, 조선의 이름인 비남론대경사가 있다.
이는 2010년의 본격적인 비약의 시작을 예고하는 첫 번이며 우리가 그려보는 찬란까지 행복의 물고기 리지는 그치지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환희의 포성이었다.
뜻깊은 2월의 경사를 맞이하는 시각에 세계를 뒤흔들고 온 나라를 격동에 휩싸이게 하는 이 거창한 번영의 징조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하늘땅끝까지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을 천백배로 굳게 해주며 주체혁명대오를 필승의 신심과 탁관으로 끓게 하고있다.

백두산출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에 인민의 환호성이 메아리쳐가는 우리의 2월, 오늘의 승리와 창창한 앞날을 축복하듯 류달리도 환희가 많이도 버리는 환희의 이 언덕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는가.
위대한 장군님 따라 저 멀리 험한 명을 넘고넘으며 우리 해군은 시련의 길은 그 열마였으며 붉은기와 총대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싸워 승리해온 영광의 년대기들은 또 그 열마였는가.

또다시 우리는 아직 그 어느 민족도 내 세워본적이 없고 이룩해본적이 없는 가장 어렵고 영광스러운 위업수행의 총공적전에 나섰다.

어째도 이것저것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또 이기며 영원히 이긴다는 믿음만이 우리의 심장에 드림없이 자리잡고있다.
승리도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었고 행복도 장군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온다는 비로 이것이 지나온 력사를 돌이켜보며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칙같은 신념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탁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신심은 가는 길과 힘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 위력의 정당성을 굳게 믿는 인민만이, 백승을 담보하는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자각한 인민만이 험난한 혁명의 길을 뜻없이 걸어갈수 있다. 승리에 대한 신심만 있으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 수평면 열어 추진 길이며 인민이 선택하고 지지하는 사회주의 길을 뜻이 빛나고 후손만대가 무궁변영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이다.
우리가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산체함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손들어 가리키시며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사회주의 이 길, 강성대국건설의 대전군이 위창찬란한 승리와 번영의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다.

인민의 신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더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 일약 우주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어 고난의 천리가 행복의 만리로 바뀌고 맑고 푸른 하늘아래 소리치며 잘살 날이 눈앞에 다가오는 위대한 리상실현의 시대, 사회주의조선의 최후한 번영기가 열리고있는것인가.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나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피하지도 예들지도 않는다. 나의 원칙은 확고하고 신념은 드림이 없으며 논리는 정연하다. 우리에게는 수령님의 빛이 있고 수령님의 식이 있으며 정니와 진리는 우리의 의지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수령님의 법, 수령님의 식!
오로지 인민에게 승리와 행복, 번영만

을 안겨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고결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 어린 이 길.
이 위업만큼 우리에게 정당할것은 없으며 위대한 장군님 따라 이 길을 끝까지 갈 때 우리가 그처럼 바라던 강성도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을수 없다.
폭풍이 아무리 사납다 해도 이 땅에 다른 길은 없으며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앞을 막아나신다 해도 승리와 잇닿은 이 길을 기어이 가려는 신념밖에 없다.
21세기의 10번째 해인 이해도 시련의 눈보라는 세차게 불어쳤다.
우리의 선군위력과 대고조의 승리를 어떻게 하나 말할해보려는 적들의 발악은 도를 넘어 그 무슨 《선제타격》이니, 《급변상태》에 따르는 《비상통치계획》이니 하는것을 공공연히 떠드는데까지 이르렀지만 조선의 대답은 어떠한가.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주제 105방 크사단의 무쇠철갑대오의 위력시위와 특별해군합동훈련은 그 어떤 부정의도 용납치 않으려는 선군조선의 힘의 파시였다. 정의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끝까지 쫓아위가려는 우리 당과 백두산혁명장군의 의지를 내외에 정백하게 선언한 일대 사변이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당의 결심에 김철의 용해공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라는 불타는 심장의 맹세를 화답해나섰고 대안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최첨단과학기술에 첫 제관공들을 실어보낸 자랑스러운 이 증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탁관에서, 2. 8비 날론에서 용용히 굽이친 총공적전의 기세는 승리와 번영의 불을 안은 인민은 오직 진전만을 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이해 2010년에 인민생활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결심한 당의 뜻이 얼마나 고마운것이며 찬란자식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어머니의 진정이 얼마나 반함없고 뜨거운가를 또 한번 눈물속에 새겨안았다.
우리 장군님과 함께라면, 고마운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이 제도와 함께라면 그 어떤 천만시련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의 무릉도원은 반드시 펼쳐질것이라는 확신은 온 나라의 민심으로 융양처럼 분출하였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울은 길도 힘이 있어야 갈수 있고 신심도 능력과 실력이 안받침될 때 드높은것이다.
우리의 신심은 힘을 가진 강자의 배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의 고난과 시련 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이 서서 멀리 보면서 비약을 해도 우주로 치달는 로켓속도로 돌진한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수 있는 무진장한 잠재력과 축적된 실력이 있고 그 어떤 강적과도 맞서 싸울수 있는 무적의 군력이 있다.
주체철과 비남론 그리고 우리 식 CNC!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민족사적경거기에 우리 힘에 대한 자부, 우리의 앞날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이 놀라운 번, 이 무한대한 국력의 폭발은 우리를 얼마나 흥분시키는가.
고난이 무어냐, 역경이 무어냐.
팡풍은 모질게 불어치고 원수들은 발악해도 우리의 위성은 더욱더 높이 하늘을 날고 우리의 주체철은 무쇠기둥으로 강대국을 받들어올린다. 마침내 우리의 비남론은 쏟아져나오야말았고 우리 식 CNC는 세계를 굽어보며 첨단에서 최첨단에 돌진하고있다.
이런 힘을 가진 나라가 어찌 난관이 있다고 하여 주춤거릴수 있으며 이런 기세로 내달리는 나라가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올라서지 못할수 있겠는가.
세계는 조선의 힘을 다는 모른다. 우리에게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세계가 모르는 굳건한 토대들과 과학기술적잠재력, 이미 비상한 경지에 올라선 현대공업의 위력이 있다.
인민생활향상의 높은 목표를 향해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막강한 위력과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하나하나 다져온 국력이 총집중되어 결정적전환은 벌써 일어나고있다. 번은 또다시 리지기 시작했다.
지금 원수들은 소리치며 비약하는 우리 현실에 위구를 느끼며 온갖 비방과 훼방을 다하고있지만 이제 똑똑히 보게 된다. 2010년에 조선이 또 어떤 번을 일으키고 이 땅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어떻게 리지나오게 되는가!
조선적위인이시며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의 진두에 높이 서시어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고계신다.
우리의 일원단심은 시련속에서 지조를 지키는 한마음일뿐 아니라 자기의 승리와 매일의 행복을 믿는데서도 또한 한마음일뿐이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승리를 믿는데서도 일원단심이 되고 휘황한 태양을 내다보고 행복한 락원을 일떠세우는데서도 일원단심이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그이께서 이끄시는 한, 그이와 함께 하늘땅끝까지 생산운명을 함께 하는 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영광찬란하다는 역칙의 일원단심이 천만의 심장에 뿌리내려있다.
지나온 나날에도 찾아가지고 삼부의 피아의 체현속에서 다시 알았다.
주체위업계승의 시대에는 찬란한 향도성으로 인민앞에 오시었고 세계의 많은 곳에서 사회주의봉피의 역풍이 불어칠 때에는 조국의 운명을 지켜 걸연히 나서시였으며 피눈물의 바다에서 무적의 선군명장,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로 이 조선을 안아 세계앞에 강대국으로 내세워주시분.
슬직한 조국이 이제 사회주의번영의 상상을 올물러야 하는 오늘에는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로 세계적인 변혁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의 존함은 곧 승리와 행복의 상징이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에는 그 어떤 불가승이란 있을수도 없으며 있어본적도 없다.
우리 장군님을 따라 승리하지 못한 력사가 없었고 위대한 그이와 함께 돌파하지 못한 역경이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하지도 결심해서 언제 한번 못한적이 없다. 반드시 이기고야하는 나의 백두산 기개를 꺾을 수는 이 세상에서 없다. ...
일찌거 립남산마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 배워 조선을 빛내시려는 력사의 선언을 리치신 때로부터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는가.
투철한 신념과 비범한 평도력, 뜨거운 사랑으로 1970년대 주체위업계승과 일심단결의 새 력사도 장엄하게 펼쳐시고 특출한 실력과 무비의 담력으로 1980년대 로동당시대의 번영기도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제국주의노에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정이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운명이고 미배시라는 것을 다시금 신심으로 절감하게 하였다.
피눈물의 바다를 헤치시며 혁명의 불을 기를 더욱 높이 드신 백두의 선군명장, 아이들이 기다리는 설악이공연무대가 아니라 병사들을 찾아 다박술초소로 향하시니 쉬임없이 전진할만리를 총휘부진하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차넘치던 만만사연을 어찌 잊을수 있랴.
철령과 오성산, 351고지와 1211고지...

조국의 운명을 안고 이 나라 전선의 무수한 산악들과 평결들, 바다길을 누벼가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자욱자욱이 가슴을 친다.
시련이 겹쌓일 때면 자신에 대한 믿음, 동지에 대한 믿음,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 백승의 진군로를 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모습을 우리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심과 락관은 천백배로 강해졌고 마침내 이 땅에 강성대국의 령명은 결정적전환은 벌써 일어나고있다.
번이 나는 내 나라, 위대한 리상이 실현되는 기적의 2009년도 그렇게 펼쳐졌고 이해 정초의 최첨단바람에 이어 2월의 흰눈처럼 유정하고 따스한 비남론폭포도 그렇게 왔다.
우리 장군님께서 설계도를 펼쳐시고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몸소 씨를 뿌리시고 애써 썩을 퇴워 소중히 가꾸어 오신것들을 어느 하나 훌륭한 열매를 맺지 않은것이 있는가.
천산과 함흥의 불야성이 그 손길아래 희한한 절경을 펼쳤고 주체철과 비남론, 검덕의 락원바람과 산소분리기, 미풍과 은송, 동봉의 강성대국리상촌들, 《신문 11경》인 대동강과수총합농장과 파조목장, 만수대거리삼림집들과 표향산의 새 동산이 그 숭고한 헌신의 자욱자욱을 따라 이루어졌다.
사람들이여, 흰눈처럼 쏟아지는 비남론을 볼 때면 《괴생골에 락》이라는 말을 깊이 되새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의 비남론대경공을 위하여 지난 3년동안만 해도 이 기업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였으니 그이의 로고와 심혈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눈오는 겨울에도 찾아가지고 삼부의 피아별과 장미의 폭우속을 헤치시면서도 또 찾으시였으며 열마에는 쏟아지는 비남론이 너무도 기쁘어 불과 며칠동안에 여러차례나 천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다.
이제 자신께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인민들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인민이 잘살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이렇게 조국과 인민앞에 다진 맹세를 매일, 매 시각 심장에 새기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지난 한해동안에 뒤임없이 걸으신 강행군길은 정녕 몇천, 몇만리인가.
전국의 200여개 현지도단위에 펼쳐진 강행군거리만도 6만 5, 000여리... 《노보강행군》, 《삼백강행군》, 《새벽강행군》, 《심야강행군》이라는 전설같은 혁명일화를 남기시며 온 나라를 총휘부진하신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도령에는 한해에 세번씩이나 찾으신 곳들도 있었고 고개와 명을 무수히 넘으시며 찾으신 산세험한 북방의 판석길도 있으며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로의 빨찌산산일행 천리강행군길도 있다.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전에는 발전잠을 잘자지 못하다고 하시며 올해 정초부터 지난해보다 더 강도높은 초인간강행군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모습을 우러를수록 우리의 귀전에 그이의 힘입는 선언이 메아리친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나의 빨찌산강행군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 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인민들이 잘살고 기뻐하면 나는 더이상 바랄것이 없습니다. ...
조국을 강대국으로 일떠세우신 공적만으로도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지만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또다시 강행군현지도 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에 대한 올해 1월 공식보도회수는 지난해 1월에 비해 2배에 달하고있다.
노보라는 사남게 불어지지만 필승의 신심과 열정에 넘치시어 우리 혁명대오에게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명을 내리며 대고조진군에 힘입는 박차를 가하시

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을 따라 조국은 얼마나 활력에 넘쳐 돌진하고있는가.
정녕 우리 장군님은 천만의 심장에 신념의 불을 달아주시고 온 나라를 총공적전으로 끊임없이 불리일으키는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기사이시다.
그이께서 승리의 진군로를 환히 열어주시실뿐 아니라 몸소 대오의 앞장에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조선의 전진이 그처럼 도도하고 용기백배한것이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펼치신것이다.
비약의 포성은 련이어 울리고있으며 우리의 목표와 전망은 뚜렷하고 확고하다.
우리 장군님 따라 승리벌쳐는 그 기상을 다시한번 펼칠 때는 왔다.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의 운명이고 영원의 승리의 기치이시라는 철칙같은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천만이 더욱 철결같이 뭉치자. 이것이 10월의 광장을 마중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찬한 기세이고 드높은 신심이다.
지난해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나 행복한 나날에나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궁지에 넘치시어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현지도도를 하러 다니면서 보면 훌륭한 일군들, 좋은 사람들이 많습시다. 우리 나라에는 애국자도 많고 영웅도 많은 나라입니다. 늘 말하는것이지만 우리 인민은 정말 좋은 인민입니다. 나는 언제나 좌측을 보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우측을 보면 나의 인민들이 있으며 가운데를 보면 나의 일군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해나가고있습니다. ...
명도자는 인민복을 외우시고 인민은 수령복을 사무치게 절감하며 거창하게 전진하는 우리의 대전군을 과연 그 무슨 힘으로 감히 막을수 있겠는가.
그 어떤 천지총파가 몰아쳐와도 인민은 일원단심이다.
어찌 날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 라고 수령님께 인민의 진정을 아뢰울리었던 태생할머니처럼 오늘 우리 인민들은 시련이 닦쳐와도,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 나자 오직 한마음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끝까지 따라갈 일원단심의 절개를 굳게 간직하고 산다.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군은 우리의 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과의 심각한 대결전이며 여기서 승리의 근본담보는 오직 한마음 장군님만을 믿고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느라 있다.
고난을 뚫고나가는 힘도, 행복을 앞당겨오는 비고도 불배의 단결에 있다. 필승의 신념도 단결의 반석위에서 분출되며 무적의 군력도 혼연일체속에서 그 위력을 천백배로 펼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실현하는것이 곧 우리의 승리며 행복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으로 날라 달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릴 보탬의 한마음으로 펼쳐나셔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해놓을줄 아는 애국자,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장군님만을 그리며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실천자, 장군님께서 명길을 걸으시기 전에 그 길을 먼저 걸을줄 아는 총칭의 인간이 되자.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탐구부가 아니라 피와 땀으로, 로동계급의 심장으로 증명된 주체철의 영웅들을 보라. 조선사람은 결코 남보다 못하지 않으며 몇배로 더 슬기롭고 용감하다는 배짱을 가지고 대형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낸 락원의 8명 당원들과 새 세대 로동계급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에서 대단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비남론의 영웅들, 비남론의 애국자들이 대고조의 참전자들에게 웨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머니조국의 부름을 매일, 매 순간 심

장에 새기며 사는 사람, 위대한 당의 진정에 깨끗한 랑심과 의리를 고일줄 아는 총칭의 인간이 될 때만이 이 시대의 애국자가 될수 있다.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라는 자력강생의 철리를 틀어쥐고 나갈 때 대고조진군의 선구자가 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의 현지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면서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시간을 앞당기고 박차를 더욱 가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더 많이 사색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고계신다.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신약도 허물고 바다도 매우는 영웅적배방,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불타는 강도, 험한 진로도 두렵없이 헤치는 혁명적기적,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자기의 행복을 묵묵히 바치는 애국의 마음으로 강성대국 행복의 열매를 더 빨리, 더 많이 안아오자.
새해벽두에 강성대국건설대군의 최전선인 최첨단과학기술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건설장들을 돌아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명하 30℃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도 결제에 얼을 헤쳐가고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대의 정신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뜨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정말 용승이다. 우리 군대의 정신력을 꺾을수 이 세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멀리서 나를 보고 입김을 연기처럼 날리며 환호를 울리던 군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민발치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북방의 강추위를 심장의 열기로 녹이며 무척된 만세를 웨치는 우리 병사들, 그 미덕과 강한 용사들에게 선군명장께서 손저어 답례를 보내주시니 이 화폭은 희망의 두개 진전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의 진전을 무한히 고무해주고있다.
세상을 둘러보라. 지금 우리 인민처럼 순고하고 성스러운 목표를 안고 강성대국에로 나배쳐오는 인민, 남들이 가질수 없는 불배의 힘을 지니고 승리만을 펼치는 인민이 또 어디 있는가.
비약의 승결을 내뿜는 주체공업을 한계만 더 높이 추켜세우고 우리의 철, 우리의 경공업제품들이 폭포처럼 쏟아질 그날을 앞당기려면 우리는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토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행군현신으로 이룩해놓으신 현대공업의 무진장한 잠재력으로 다시한번 번을 일으키며 더 눈부시게 비약한다면 얼마나 거창한 기적이 창조되고 찬란한 미래가 열리게 될것인가.
고난을 이겨내는 창조적 배짱,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앞날을 확인하는 드릴수 없는 락관, 황포탄 자연도 길들이는 기적창조의 힘으로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
풍요한 가을날 10월의 광장에 들어설 때 동무는 2010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해놓았는가 하는 랑심의 물음에 몇몇이 대답할수 있도록 애국의 진한 땀을 바치자.
력사의 모든 승리는 신심이 강한 인민 의지이다.
이제 세계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또 다시 일으키시는 승리의 번, 행복의 번이 어떤것인가를 이 땅에서 반드시 목격하게 될것이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각 우리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다시금 심장의 맹세를 리친다.
장군님 따라 우리는 신심드높이 가리라!
그 석적한 보부, 큼직큼직한 보복속에 앞당겨질 휘황한 매일이 보인다.
승리의 2012년을 향하여 더 용감하게 앞으로!
고 현 주



오성산의 칼바람길 굽이마다에 아로새겨져 있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조국수호의 거룩한 자욱 및 지 없으니 분사기자 장정민 찍음

천출명장을 모신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



선군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펼쳐가시는 백두령장의 기상처럼 높이 솟아 빛나는 정일봉

본사기자 리원국 적음

민족최대의 행운의 2월, 승리와 영광의 2월의 명절을 앞둔 이 시각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애오라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만 팔없이 달려가고있다.

당장진 6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기 위하여 새해 정초부터 불철주야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러르며 우리를 수복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궁지와 자부심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서 용암처럼 끓어넘친다.

김정일시대는 오늘도 영광스러운 시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찬란하고 통성번영하는 시대로 펼쳐질 것이다. 우리 조국의 오늘을 그리듯 행복에 넘쳐 축복하던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하늘에도 땅에도 광채를 던지는 환희의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주제 조선의 상징이며 미래입니다. 김정일동지는 승승장구할것입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탁월하기때문에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마음을 놓고있습니다.》**

장성대국대문을 팡팡 두드리는 소리가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울려 우리 수령님의 넘원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귀중한 때에 민족의 환희가 하늘끝에 닿았던 력사의 2월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천만군민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하늘이 떠날듯 울려온 백두의 봄우리가 장쾌하게 들려오는듯하다. 항일의 총포성이 울부짖는 백두

전장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력사의 그날은 항일대전이 한창이던 주제 31 (1942)년 2월 16일이였다.

전날까지도 새차게 휘몰아치던 눈바람도 멎고 그날만은 신기하게도 따스하였다.

그때서인지 겨우내 지출대며 흐르던 소백수의 맑은 물도 정갈한 일강을 뿜어 풀짜기에 하얀 서리꽃 동산을 아름답게 펼쳤고 장수봉리 (오늘의 정일봉)에서는 온백색꽃 보라가 쏟아져내렸다. 온기 드문 황홀경이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자연도 무심치 않은 대경사였다. 밀영지는 삼시에 경축의 열기로 들끓었다.

백두산의 신비로운 정기와 기상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탄생하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을 모신 기쁨과 감격의 환희가 백두천지에 물결쳤다. 격정을 누를길 없었던 대원들은 주인의 나무들에 정히 글밭들을 새겼다.

《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꽃 이을 광명성 솟았다》... 언젠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시며 백두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젖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공소리와 함께 성장한 김정일장군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주체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의 총포성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한 경애하는 장군님, 정령 백두산은 주체의 태양을 높이 받들어올린 혁명의 성지이며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천품을 키워준 《요람》이였다.

인류력사에 명자들이 많았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탄생하신 첫날부터 태양으로 청송되고 떠날때리운 위인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었던가. 인류가 세기를 두고 바라고 애라게 갈망했어도 단 한번도 모시지 못한 천재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 모신것은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최대의 특전이며 행운이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고 미개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하늘의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빛을 뿌리듯이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어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행복도 미래도,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빛나고 있는것 아니라.

일찌기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의 길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뜻깊은 2월의 명절과 더불어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하고있습니다.》**

주제 63 (1974)년 2월 16일 농업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뜻깊은 이날을 지방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서 맞이하시였다.

밭새 약간의 눈이 내린 이날의 날씨는 류달리 푸근하고 상쾌하였다.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아침 속속의 마당가에 나오셔서 산책하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일꾼이 달려와 인사할 때 드리자 푸름푸름 활짝오는 하늘을 보시며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꾼은 어버이수령님께 오늘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대 오늘이 2월 16일이니, 날씨가 오늘을 알아주는것 같소라고 하시였다.

순간 일꾼의 가슴은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뜻깊은 이 아침 눈내린 속속의 마당가를 지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각하게되었던것이였다.

이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일동무는 언제 한번 생일을 쇠본적이 없다고 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무엇을 마음놓고 뒤를 따라서는 일꾼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래서 오늘은 김정일동무와 식사라도 한끼 같이하고 여기서 좀 휴식시키려고 불렀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시어 잠시라도 사업이 벗어나 휴식하시게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즐거웠다. 그러나 다음순간 일꾼은 걱정이였다.

그대 오신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한것이 없었던것이였다.

이러한 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신듯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일었고, 김정일동무는 원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따로 준비하는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자신께서 이미 손님이 되며 휴식이라도 한끼 이야기하였으니 아침식사는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눈부신 해살이 쏟아져 내릴무렵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그 이께서 김정일동무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시며 오늘 식사라도 한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찾았다고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2월의 아침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나누시는 절세의 위인들을 우러르며 일꾼은 그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는 승연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산책하시며 중요한 사업토의를 하시였다.

어느덧 아침식사시간이 되었다.

어느날과 다름없는 너무나 소박하고 평범한 식사를 올리는 일꾼들의 심정은 충구스럽게 그치지였다.

본사기자 김용진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식탁을 마주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방에는 어느때였는만큼 즐겁고 여유로웠다.

일마후 식사가 끝나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오늘을 날씨도 좋은데 여기서 좀 쉬고 가라고 하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오늘 포치해놓은 사업들이 많아서 떠나야 할것 같다고 수령님께 말씀드리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차가 저 멀리 안습이를 돌아서자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정일동무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지라고 조용히 보이시며 일꾼들에게 그는 아직까지 한번도 생일상을 따로 받아본적이 없다고, 생일날에도 어느날과 같이 일을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에 도착하시어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전국공업대회준비를 비롯한 여러 부문 사업들에 대한 지도로 하루를 보내시였으며 그날 저녁 그이의 정실실생일은 어느때처럼 새 날이 시작될 때까지 거칠 줄 몰랐다.

지금으로부터 36년전 뜻깊은 2월의 그날은 이렇게 흘러갔다.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흐른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무한한 정력으로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던 그 나날처럼 어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넘원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불멸불후의 강령을 수립없이 이어가고계신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새겨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이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용진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매일의 승리와 대한 끝없는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는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는 내 조국방역에 위인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린다.

최세의 선군명장 김정일장군님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크나큰 궁지, 절세의 위인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영원히 만복을 누리려갈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을 담은 노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기다렸습디다...》

노래는 인간의 사상감정의 분출이다. 하지만 어려울 때나 기쁨 때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열렬히 칭송하며 그리울 노래, 환희의 노래를 부르고자하는 우리 인민의 승고한 사상감정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몸을 바쳐 따르는데, 만민의 마음을 끌어야 자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의 품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이라면 그들의 오늘뿐 아니라 매일의 운명도 행복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일군에 한집 그들이 있을세라 친부모보다 더 깊이 마음쓰고 다신한 심정을 기울여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품,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어머니 품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품에도 대한 이야기 뜻깊은 2월의 하늘가에 얼마나 뜨겁게 메아리치고있는것인가.

끝없이 쏟아져내리는 추운빛의 물줄기를 바라보는 장군님에게 그의 심장을 뜨거운 총으로 세차게 쏘게 하는 잊지 못할 사연이 돌이켜진다.

뜻깊은 두레정의 12월 24일, 천리마계 강령합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식의 초고전력기료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신데 이어 몸소 들리신 용해공식당의 식사칸.

홍콩히 푸러진 식당의 면모를 두고 일꾼들모두가 내심 만족해하였지만 어쩌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저기 안색을 흐리시였는가.

식사칸의 온도가 높지 못한 것이 우리 장군님의 마음을 가볍지 못하게 하였다.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가 높다고, 로동자들이 추운데서 식사를 하게 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준결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속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대가 흐르고있다.

필필 끓는 쇠물에 앞서 로동자들의 편리한 생활조건을 먼저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아, 우리 장군님은 정녕 노

래에도 있는것처럼 세상에 오지 못한것처럼 없는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다!)

쇠물보다 더 귀중한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타협도 모르는 우리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일꾼들의 죄책감은 어느덧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를 명도자로 모신 비결에 없는 증지로 바뀌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보실 때면 온 세상을 통째로 얻으신듯 기뻐하시고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현상을 대하실 때면 더없이 피로와하시며 축에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적품성에 의하여 기업소책임일꾼들이 용해공식당에서 사죄하는 류례없는 모임이 진행되고 생산보다 먼저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던가.

우리 인민들의 직생활을 위해 깊이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다신한 사랑속에 새 세기 요구에 맞게 훌륭히 푸러진 주강양어장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 이야기로 전해지고있는것인가.

지나해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께 모여드는 물고기들을 보시며 이 물고기들이 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갈수 있다면 우리 수장은 얼마나 기쁘고 절절하게 하시겠습니까.

저 칠썩어떼를 보면서 나는 지금 우리 인민들에게 하

참된 삶이 활짝 꽃피고 위황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가리켜 《인류의 리상사》, 《인류의 지상락원》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인류는 오랜 세월 침략과 전쟁, 착취와 압박이 없고 누구나 평등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사는 리상사회를 념원하여왔다.》

인류가 념원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며 이 리상사회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현실로 펼쳐졌다.

조선에 가보라. 그러면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같은 마음과 무로교육을 비롯하여 다른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향만과 행복에 넘쳐 화목하게 사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을 직접 목격하게 될것이다.

나미바의 한 출판사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의 과학》을 출판하면서 서문에 게재한 이 글에 경애하는 김일성 어버이수령님의 조국, 주체조선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랑의 화신인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정치를 충정의 일관성으로 받드는 길에 후손대대의 번영이 있을을 쉼리로 간직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빛내어주시겠다.

본사기자 개성남

잇을수 없는 2월의 품결에

위대성 교양을 실속있게

영원한 어버이 품

어

버

이

품

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벌려 나가고있다.

성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를 높은 생산실적으로 받들며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술소품준비비를 잘하고있다.

책임일꾼들과 장부원들이 부르는 합창, 성무창을 비롯한 여러 예술소품들에 대한 공연 준비과정은 일꾼들과 장부원들로부터 하여금 나라의 농업생산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더 깊게 가지게 하고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예술, 체육행사들을 비롯한 여러 품결들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있다.

농업성 당조직에서도 2월

본사기자 최시흠

주체99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 《장군님과 아이들》 진행

주체99년 설명절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 《장군님과 아이들》이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21세기 첫 번째를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고 혁명적대고조

의 새 역사를 창조한 긍지높이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파란만장한 격투를 벌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희망의 설날을 맞이한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뒹머니고있었다.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주체99》, 《설맞이》라는 글발

들과 축동, 줄전구 등으로 모임장소는 화려하게 장식되어있었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상,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근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학생소년들과 함께 모임에 참가하였다.



주체99년 학생소년들의 설맞이모임 《장군님과 아이들》 진행



소합창이여기 《우리는 백두산답사행군대》



재일조선학생소년들의 설화와 무용 《장군님 뵈고싶어 왔습니다》

모임에는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를 대표, 외국소년들이 모임에 초대되었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은 체육관에서 지난해 국제, 국내 무대들에서 지극히 경이로운 신군조선 세 세대의 영예를 펼친 학생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성과를 축하해주었으며 설맞이모임 60돐기념 사진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선학생소년들의 설화와 무용 《장군님 뵈고싶어 왔습니다》, 동화무용 《막대다람쥐가 판비섯》, 소합창이여기 《우리는 백두산답사행군대》, 남중창 《다음번 위성은 내가 쏘래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으로 오늘도 주체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사 무치는 그리움과 전진걸의 눈 비를 다 맞으시며 이 땅위에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워주시는 아버지장군님께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감명깊게 대 상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2.16경축 제일조선인예술단 단장인 리봉수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어머니조국에서 뜻깊게 맞이하는 자기를모두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매이었고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설적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것은 주체조선의 장대한 앞날을 기약해준 민족의 대경사였다. 2월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2.16경축 제일동포들은 친솔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곤 한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세련된 령도로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내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일대 전진기를 맞이하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려 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며 한생을 불같이 사시는 위인을 력사는 알지 못하였고. 찬바람번비를 맞으시며 조국 땅 방방곡곡을 찾아 불변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셨던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를 때마다 우리는 격정을 금치 못하곤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인민들은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강선의 봉화를 김

우리는 경애하는 대원수님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온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예술창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있다. 이번엔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그이만을 따르자 마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창작한 노래와 춤을 가지고 조국으로 왔다. 우리는 천하제일위인복을 누리려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를 안고 태양의 노래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애국의 한길을 굳이 걸어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수필 2월의 밤하늘에 울리는 노래 며칠전 함경북도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가 밤이 깊어 평양역구내를 벗어날 때였다. 역사의 시계가 0시를 가리키는 순간 종소리가 울리더니 가요 《대를 이어 흥성을 다하렵니다》의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오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평시에 자주 듣고 부르던 노래였지만 뜻깊은 2월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의 선율은 나의 가슴을 한없이 순연한 그리움의 세계에 이끌었다. 위대한 수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품도,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어 가는 혁명이다. 우리 인민에게는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들이 많다. 그러나 가요 《대를 이어 흥성을 다하렵니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제14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일민족 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4일 제14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불세출의 선군명장에 대한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열화같은 흥분의 정에 떠날때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화로 황룡경을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는 다음

가극 《에브게니 오베긴》 창조성원들을 표창

가극 《에브게니 오베긴》 창조성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가극 《에브게니 오베긴》을 훌륭히 재형상함으로써 선군시대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제예술의 면모와 우리 당의 예술인후비양성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피시하였다. 표창식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

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가극창조성원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표창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학장 리일남, 조급당비서 지상철, 주체음악연구소 제1부소장 박정남, 관현악단 단장 김명철, 바다가극단 미술가 김명수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부학장 김학민, 의상사 주달미에게 수여되었다. 평양미술대학 교원 장세주에게 공훈메달과 표창장이,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관현악단 연주자 김창길에게 공훈메달 수여되었다. 또한 로동조합이 5명에게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창조성원들이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표창식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예술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루기며 전도유망한 예술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흥겨운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보통강구역 서장동에서- 본사기자 찍음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1일 경축연회가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로씨야의무성 부상, 국가회의의 의원들, 연방평의회 의원들과 《통일로씨야》당, 《정의로씨야》당, 연방공산당, 전연방블레비코공산당, 평화 및 통일당, 외무성, 국방성, 지역발전성, 경제발전성, 비상사태성, 내무성, 문화성, 농업성, 《로씨야철도》 주식회사, 과학원, 모스크바시정부, 모스크바전경보병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친조 로씨야협회 등 정부성,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이어 그들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김정일 로씨야주재 우리 나

경축연회 진행

라 특명전권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우리 인민의 운명적척과 주체혁명위업의 앞길에 장창한 미래를 기약해준 력사적사건이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구한 기간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명도로 조국과 민족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웠던 조국 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강성대국건설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조로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수뇌분들의 관심속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올해에 쌍무관계를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언급하고 로씨야인민이 국부력 강화와 사회적안정, 경제적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알렉세이 보로딘전 로씨야의무성 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에이. 비. 바르단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가 5일 립회석 인디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인디아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은 오랜 친선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반제투쟁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 연대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을 올해의 총적인 투쟁방향으로 내세운 조선의 공동사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완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미국은 조선의 이 제의를 받아들여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에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기술혁명의 앞장에서

평양기관차대에 개편된 3대 혁명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기세풍채 내달리고 있다. 그들은 침착을 돌파하며 대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획, 기술, 대렬관리 등 대의 관리운영과 활동에서 질실하게 제기되는 문체들을 정교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한데 이어 3상전동기



대성구역 통동3동에 사는 스승을 찾아온 제자들. 《선생님,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리진명 찍음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따르는 겨레의 순결한 마음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

비약의 토마를 타고 힘차게 솟구치며 세계를 향하여 파급되풀이하는 선군조국에 경사로운 2월의 봄이 왔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머니로 높이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환희와 격정의 파도가 세계에 삼배고 있다. 남북경제교류가 가속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가 가속되고 있다. 남북경제교류가 가속되고 있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언제나 찬란합니다.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안녕은 7천만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 영원히 통일조국의 찬란한 태양을 위하여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남녘의 하늘에 끝없이 울려 퍼지는 다함없는 이 축원의 인사들은 민족의 운명이며 행복의 상징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따르며 영원무궁토록 받들어모시려는 남북경제교류의 리없이 맑고 깨끗한 흐름이 되기를 바란다.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월 16일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맞이한 끝없는 영광과 행운의 날이다. 이날을 떠나 궁지높은 민족의 오늘과 배일, 찬란히 통성변영할 통일강국의 앞날을 생각할 수 없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룬하신 민족의 위대한 위인이다.》

《백두산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며 우러러 따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성공리에 개척한 영도자는 없다. 김정일장군님은 정치철학에서도 제일이시고 담력과 지략에서도 으뜸이시며 영도적 심판에서 버려나오는 왜침이 있다. 그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고 통일을 위하여 영원히 강성부흥할 것이라는 확신의 탄성이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백두산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예지와 선진지명으로 제국주의 위협세력의 협공을 분쇄하시며 민족의 존엄을 온누리에 과시하고 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그야말로 태양을 받아안은 우리 겨레의 대행운이라 해야 할 것이다. 《말년 제주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영도자로 받들어모신 우리 민족이야말로 대를 이어 령도자복을 누리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이다.》라고 한다.》

《김정일장군님은 풍파사나 20세기 후반기 가장 30여년간이나 민족자주위업을 이

《태 양 가》

2월의 하늘가에 남북경제가 심장이 부르는 위인 칭송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남북의 한 시인이 심장으로 읊은 《태양가》의 구절이 있다.

이월이라 름춘지나 봄이 오는 좋은 계절 심취라 우수무렵 세상만물 소생할 때 백두에서 탄생하신 백두산의 장한 아들 삼천년의 넘던양아 태양으로 모시되네 쇠굴자 금빛으로 온 누리를

《2 월 의 봄 맞 이 회》

2월의 봄맞이회가 결성되던 날에 있는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2월의 봄맞이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몇 해전 2월초에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최무성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경도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월의 봄맞이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몇 해전 2월초에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최무성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경도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월의 봄맞이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몇 해전 2월초에 서울에서 결성되었다. 이날 회장으로 선출된 최무성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경도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 념 도 서 들 에 어 린 흥 모 심》

최무성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경도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 념 도 서 들 에 어 린 흥 모 심》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총련중앙강연회,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13일 일 본 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는 최정호 총련중앙 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간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총련중앙 고문들, 제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총련중앙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책임자, 합작기업 총련본부 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꾼들과 동료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료 념 지 구 협 회 에서 경 축 행 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제중동포들의 열렬한 축하를 담아 삼가 축하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년간 천리헤안의 예지로 시대와 인민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영연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격찬하였다.

료녕지구협회 전체 성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일떠선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진군에 발

인 민 의 해 에 넘 쳐 나 는 설 명 절 기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있는 각지 근로자들이 설명절을 즐겁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설명절 아침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내건 만수대안력을 비롯하여 각지에 모신 어머니수령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꽃바구니와 꽃송이를 진경하고 설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새 로 동 포 단 체 들 기 념 강 연 회 진 행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로씨야연방 연해변 강 동포단체들이 8일 기념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울라지프스르크, 나호드카, 아르스코, 우수리스크 등 연해변강의 동포조직체들이 강연회에 참가하였다.

박정원 로씨야연방 연해변 강 동포단체 위원장이 강연을 하였다. 출연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위대한 장군님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 꽃 퍼나를 수도의 거리



위 대 한 장 군 님 사 랑 속 에 인 민 의 행 복 꽃 퍼 나 는 수 도 의 거 리 본사기자 찍음

